

F1 제2서킷·남해안 복합해양센터 건립 추진

전남도 내년 신규사업 180건 선정 7550억 필요... 3월까지 계획안 확정

전남도가 F1 코리아 그랑프리 경기장인 영암 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에 자동차 성능 검사 등을 위한 제2 트랙(1.2km)을 건설하는 등 내년에 추진할 신규사업 180건(7550억원)을 선정했다.

14일 전남도는 “영암 서킷 내에 새로운 트랙을 건설하고,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 건립하는 등 신규 사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영암 서킷의 제 2트랙 건립(예산 160억원)을 위해 2015년 국비에 80억원이 반영되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F1 전용 서킷(5.6km) 옆에 국내의 자동차 업체들이 차량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전용 서킷을 건립하고, 도가 이곳 일대에 추진하고 있는 모터러스터 조성과 자동차 튜닝산업 등과 시너지 효과를 거둔다는 방침이다.

또 전남도는 남해안 복합해양센터 건립 등 투자와 미래전략사업 16건(1020억원), 전남디자인마케팅 센터 건립 등 관광문화사업 6건(116억원)의 신규 사업을 선정했다.

2016년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개최 등

보건과 복지 분야 16건(205억원)과 친환경 농식품 육성분야 40건(2261억원)도 추진 사업으로 선정됐다.

전북수출양식단지 등 해양수산분야는 34건(1047억원), 도로개설과 재해예방사업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는 31건(1387억원)이다. 영산강 생태습지공원 조성 100억원 등 녹색성장사업 17건 696억원의 사업도 추진하게 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나주시에 건립되는 빛가람도시(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혁신도시비즈니스센터(282억원)를 건립하고, 영암·해남관광레저형기업도시 부지 내에 전통한옥에서 남도 음식을 맛볼 수 있는 남도전통하모음식문화촌(350억원) 건립도 추진된다.

이 밖에 농어촌의 빈집 정비(240억원), 전

남디자인마케팅센터(90억원) 건립 사업과 신안 도초~하의 연도교(2711억원), 여수 화태~백야 연도교(2978억원) 등의 SOC 사업도 신규 사업으로 선정됐다.

이들 사업은 전남도, 일선 시군, 전남발전연구원, 도 정책자문위원회 등에서 제안된 사업으로 사전보고회 등 수차례 조율을 거쳤다.

전남도는 오는 3월 말까지 계획안을 최종적으로 확정된 뒤 정부 부처에 제출, 내년 사업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양복안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미래 성장동력 산업과 첨단산업의 기반구축, 천혜의 자연경관과 풍부한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동북아 관광중심지 육성사업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문순태 칼럼

지난 주말 우리 부부는 큰 맘 먹고 영화 ‘변호인’을 보았다.

관객 1000만 명이 넘어선 후에 보려고 한껏 미루어오다가, 900만 명이 가까웠다는 소식을 듣자 부랴부랴 영화관을 찾았다.

보고 싶은 마음으로 발싸삼해왔으나 진정 아껴두었다가 참을 수 없을 때 불생각이었다.

기실 늙은 나이에 도시에 나가서 영화를 보는 것은 서울 나들이하는 것만큼이나 힘이 드는 일이기도 하다.

나는 ‘변호인’ 개봉 이후 주변 사람들이로부터 영화를 보았느냐는 질문을 수없이 받아왔다. 아직 보지 못했다고 할 때마다 조금은 뜨악한 반응이었다.

마치 이 영화를 본 사람과 보지 않은 사람을 정의로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편 가르키라도 하는 듯 묘한 느낌을 받았다.

‘변호인’을 본 대부분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감동을

‘변호인’이 우리에게 던져준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 어떤 경우에도 어두웠던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부림사건’을 응공조작하기 위해 고문을 했던 경찰관이며, 판사와 검사의 이름, 그리고 그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엄중하게 지켜보아야 한다.

인간에게 고통을 준 사람들은 반듯이 역사 앞에 무릎 꿇어야 한다.

두 번째, 진화하는 인간만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주인공 송우석은 상고 출신으로, 세무 속물변호사에 불과했다.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돈 버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다. 그런 그가 국밥집 아들 진우가 억울하게 빨갱이로 조작되는 상황을 인식하고 나서, 인권변호사의 길을 가게 된다.

진우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다섯 번의 공판을 통해 그의 인생은 송두리째 바뀐다.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의 반전이 아닌가. 이를 계기로 그는 민주주의의 수

‘변호인’ 보셨습니까?

받았다고 했다.

국가 이름으로 자행된 폭력적 공권력에 대한 반성의 계기를 만들어준, 정치적 메시지가 큰 영화라는 것에 공감하고 있었다.

한 후배는 박근혜 정부에 경고적 함의가 담겨져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암튼 이 영화가 10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에게 고(故) 노무현 대통령을 그리워하는 것 이상의 충격과 분노와 감동과 자성을 안겨준 것이 분명하다.

나는 ‘변호인’을 감상하는 두 시간 동안 내내 마음이 먹먹하게 가라앉았다. 옆자리에서 훌쩍거리고 울기 시작할 때 마다 울컥 목울대가 뜨거워지면서 나도 모르게 주먹이 불끈 쥐어지기도 했다.

그 때와 지금, 과연 달라진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볼기도 했다.

아, 우리가 이런 질곡의 어두운 시대를 살아왔구나 하는 탄식과 함께, 그 때 신문기자였던 나는 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무엇을 했던가 하는 자괴감에 빠졌다. 시대의 어둠을 견어내기 위해 고군다하고, 피흘린 정의로운 사람들에게 밝힌 까라도 사 존 적이 있었던가.

영화가 끝나고 밖에 나오니 한낮의 겨울 햇살이 눈부시게 쬐어내렸다. 갑자기 다른 세상에 온 듯한 낯설음에 자칫 극장에서 느꼈던 시대의 고통을 잊을 뻔했다.

<소설가>

호를 위해 역사의 중심에 서게 된다. 뜨거운 인간애와 정의로움이 없는 사람은 결코 진화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세 번째, ‘변호인’을 보면서 흘린 눈물의 의미는 민주주의에 대한 뼈저린 성찰이다. 이 영화를 본 사람들 대부분은 눈물을 흘렸다.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린 것일까. 분노와 동정과 슬픔 때문이었을까.

오래된 상처를 툭 건드렸을 때 짝 짝 놀라 흘리게 된 눈물. 그것은 자신이 겪은 부끄러운 역사에 대한 자기성찰에서 비롯된 시대의 눈물이 아닐까.

같이 영화를 본 아내는 진우 어머니 김영애 때문에 눈물을 흘렸다고 했다.

김영애가 한계선에 눈물을 주무룩 흘리는 것이 아니라, 끔찍 않으며 어머니로서의 힘겨운 고통을 참아낼 때 더 절절한 슬픔을 느꼈다는 것이다.

나는 판사가 99명 변호인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는 마지막 장면에서 울컥했다. 어쩌면 그것은 한 인권변호사의 승리라기보다는 정의를 요구하는 시대의 승리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우리 시대의 진정한 변호인은 누가 있을까 생각해보았다. 우리는 아직도 송우석과 같은 시대의 변호인을 갈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원은 14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NGO센터에서 ‘호남권 생활공감·지역발전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전남도 신임 감사관 장양국씨 임명

전남도의 신임 개방형 감사관에 장양국(56) 감사원 지방행정감사국 제1과 수석감사관이 임명됐다.

전남도는 지난달 부이사관(3급) 감사관 공모 결과 후보자 3명이 응시해 서류·면접 전형을 거쳐 장씨를 최종 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개방형 직위인 도 감사관은 중앙이나 지자체 등에서 감사, 수사, 법무, 회계 등의 분야에 종사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선발한다.

전남도 감사관은 2011년부터 2년간 외부에서 임용했으나 지난해에는 적격자가 없어 내부 공무원이 임명됐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낙후지역 발전 위해 ‘경제적 효율성’ 위주 틀 깨야”

여의도 研 ‘호남권 발전 세미나’서 신순호 목포대 교수 지적

전남과 같은 낙후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경제적 효율성을 전제로 한 국가 투자제도의 틀을 과감하게 수정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순호 목포대 교수는 14일 광주 NGO센터에서 열린 ‘호남권 지역발전 정책세미나’에서 “낙후지역이 새로운 국가발전 동력의 축으로 형성될 수 있는 제도개혁이 시급하다”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는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주최로 열렸다.

토론자로 나선 신 교수는 “지역간 격차가

조성된 이후 경제적 효율성(타당성)을 바탕으로 한 제도가 국가발전의 정책 기조가 되면서 낙후지역의 격차해소에 결실들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는 장기적 국가발전과 국가통합에 큰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예비타당성 조사의 경우 법령상 지역균형발전 정도를 감안하게 되어 있지만, 정책여건에 따라 동일한 유형의 사업이라도 비 일관적인 경제성 분석결과가 적용된다”면서 “특히 사업의 경제성만을 강조하면 지방 및 낙후지역이 갖는 기본적인 수요

창출의 한계 때문에 필연적으로 사업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신 교수는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으로, ▲예비타당성 조사시 지역 의견반영과 외부 전문가 참여 의무화 ▲낙후지역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항 신설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 및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기준 구체화 등을 제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업 중 하나인 동서통합지대 조성을 위한 문제점 등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발제자로 나선 전남발전연구원 오병기 경

제사회연구실장은 “과거 광안만·진주권 광역개발계획과 남해안권 종합발전계획 등 동서지역을 아우르는 사업이 추진됐지만, 추진체계 미흡과 지역 내 숙원사업 중심 추진 등에 따라 가시적 효과가 미약했다”며 “현재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관련 사업 일부가 추진중이긴 하지만, 내용 및 범위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오 실장은 “동서통합지대 조성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자원조달 방안을 마련하고 국비 지원비율을 연계해 협력사업 수준으로 상향 조정 및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보조금 차등 지원 등 국비 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호남권 지역발전 정책세미나에는 새누리당 유수택 최고위원과 이정재 광주시당 위원장, 이주영 여의도연구원장이 참석했으며 이정록 전남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백운동 까치고개 (동아일보 사옥)

메디칼센터 임대
(병·의원) 임대

2층 : 양·한방 입점 완료
3층 : 피부과·비뇨기과,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안과 등 입점 가능

넓은 주차장(80대주차가능) / 저렴한 임대비

문의 | 062) 651-6581
의 | 010-3690-7790

나주 혁신도시·강변도시
남다른 부동산 투자법!

매물을 팔려는데?
매물을 사려는데?

고객 여러분의 고민을
솔로몬 부동산이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상업용지 / 근생용지 / 점포주택지 / 주차장용지
바로 지금이 기회!!

나주 혁신도시 전문
나주 솔로몬 공인중개사

H. 010-5587-3080 / 010-3505-8005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54-32(우정사업본부 후문 방향)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 131226-8-52297호

노안시려
노안교정

밝은광주안과 의원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신로내방 노인리식 / Kamra Inlay를 이용한 시술 / 다초점 인공 수정체 / 레스토렌즈

밝은광주안과